

최근 기업여신 부실 현황

미래전략개발부 정책금융팀
이 기 은 (keithlee@kdb.co.kr)

- ◆ 은행의 기업대출 부실은 '22.9월 이후 중소기업 위주로 증가하였으며, 특히 부동산업 등 비제조업의 부실채권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
- ◆ 채무상환능력이 양극화되고 전통 제조업 등의 성장성이 위축되는 가운데, 금리 상승 등 부정적 거시경제 환경이 상존하고 있어 기업대출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
□ 은행의 기업대출 부실은 '22.9월 이후 중소기업 위주로 증가하였으며, 특히 부동산업 등 비제조업의 부실채권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

- 은행의 기업 부실채권비율은 '22.9월 0.50%(코로나 이후 최저치)까지 축소되었다가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다시 상승하여 '26.3월 기준 0.75% 기록
 - * 기업 부실채권비율('19 → '22.9 → '26.3, %) : 1.12 → 0.50 → 0.75
-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나, '26.3월 기준 부실채권규모는 14.1조원으로 '19년말 13.1조원 대비 1조원 증가
 - * 기업 부실채권규모('19 → '22.9 → '26.3, 조원) : 13.1 → 8.0 → 14.1
- 기업규모별로 보면 '26.3월 대기업,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0.52%, 0.88%로, '22.9월 이후 중소기업을 위주로 부실채권비율이 증가
 - * 기업규모별 부실채권비율('19 → '22.9 → '26.3, %) : (大) 1.59 → 0.52 → 0.52, (中小) 0.89 → 0.49 → 0.88
-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조선업 부실 정리 등으로 부실채권규모가 '19.12월 대비 축소된 반면, 부동산업은 '22.9월 이후 부동산PF 부실화* 등 영향으로 확대
 - * 은행 부동산PF 부실채권비율('23 → '24 → '25 → '26.3, %) : 0.08 → 0.67 → 0.98 → 1.28

은행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



자료 : 금융감독원

업종별 은행 기업대출 부실채권규모



자료 : 한국은행

□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양극화, 전통 제조업 및 건설업의 성장성 위축 등 위험요인 잠재

- '23년 이후 이자보상비율은 회복세이나, 이자보상비율 100% 미만인 취약기업*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양극화되는 것으로 판단
 - * 취약기업 : 이자보상비율이 100% 미만으로 영업활동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
- 영업적자기업의 비중도 '22년 대비 증가하여 향후 기업대출 부실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
- '25년 매출액증가율은 '24년 대비 1.7%p 감소한 2.5%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직전 10개년 평균(4.5%) 대비 낮은 수준으로 기업 성장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 - 최근 반도체, 조선업종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(석유, 화학, 고무·플라스틱) 및 건설업에서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성 저하
 - * 업종별 매출액증가율('23 → '24 → '25, %) : (전자) △15.9 → 21.6 → 15.1, (석유) △14.1 → 1.0 → △7.4, (화학) △8.6 → 4.0 → △2.4, (고무·플라스틱) △2.6 → 3.6 → △0.3, (건설업) 4.8 → △3.2 → △9.6

외감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추이

(단위 : %)

	'22.12	'23.12	'24.12	'25.12
이자보상비율	443.7	221.1	305.8	369.8
취약기업 비중 ^주	34.6	39.0	38.5	39.9
영업적자기업 비중	25.0	27.0	26.2	28.2
매출액증가율	16.9	△2.0	4.2	2.5

주 : 이자보상비율이 100% 미만인 기업 비중
자료 : 한국은행

□ 3高 현상(高금리·高환율·高물가) 등 부정적 거시경제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 업종 관련 부실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기업대출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
-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가운데, 3高 현상(高금리·高환율·高물가)으로 인한 기업 비용 가중, 중동사태 여파 등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우려
 - 특히, '26.5월 중소기업 연체율이 11년만에 가장 높은 1.00%를 기록하는 등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인한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세 지속
-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한 전통 제조업 실적 악화 및 건설업 부진 등으로 인한 부동산PF 부실 등도 위험요인
-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지속 하락*하고 있어 기업대출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 - * 은행 대손충당금적립률('23년 → '24년 → '25년 → '26.3월, %) : 214.0 → 187.0 → 160.3 → 150.4